

어선 '제2해신호' 전복사고 관련 상황점검 회의 개최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9일 06시 43분경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약 37해리 해상에서 전복된 상태로 발견된 근해연승어선 '제2해신호' 전복사고를 보고받고, 즉시 “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” 이라고 지시하였다.

해양수산부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“심각” 을 발령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였다.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행안부, 국방부, 해경청, 경상남도, 제주도, 남해어업관리단이 참석하는 실종자 수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,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조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△ (사고개요) '24. 3.9.(토) 06시 43분경 경남 욕지도 남방 약 37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'제2해신호' 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

* 총톤수 20톤, 제주 선적, 9명 승선

△ (07시 30분) 「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에 따라 위기경보 “경계” 발령

△ (08시 30분) 「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에 따라 위기경보 “심각” 발령

△ (09시 30분 현재 피해현황) 9명 중 3명 구조, 6명 실종